

한국어 성상형용사 구문에서 주어와 주제의 재해석*

- 한중 대비를 중심으로 -

소령령**

〈차 례〉

1. 들어가기
2. 한중 주어와 주제의 논의 및 문제들
3. 한중 대비를 통해 본 성상형용사문의 주어와 주제
4. 나가기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중국어와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의 'NP1+NP2+A' 구조에 나타나는 주어와 주제를 재검토하였다. 주제는 구문에서 어떤 통사 성분을 부여받음으로써 언어의 한 문법 특징인 [+TOP]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문법 층위에서 특정한 자리가 있다는 시사하며,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여러 통사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소위 '이중주어문'이 단일 주어 구문임을 밝혔는데 NP1은 구문에서 유일한 주어 성분일 뿐만 아니라 주제 특징 [+TOP]도 가지고 있다는 것과, NP2는 구문에서 생략이 되더라도 오히려 비주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중국어 부사의 특성, 비교 문장의 특성 등의 방법을 통하여 'NP1+NP2+A' 구조와 'NP1의 NP2+A' 구조를 서로 대응해 보았는데, 두 구조를 평행한 구조로 볼 수 없고, 두 문장은 의미상이나 구조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주제어] 이중주어문, 단일 주어 구문, 주어, 주제, 주제 특징 [+TOP]

* 이 논문은 '中山大学高校基本科研业务费-青年教师培育项目: 交叉学科研究范式下外国语言文学学科的多维融合与理论创新(2024qntd53)'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중산대학교 국제번역학원 동아연구센터 부연구원

1. 들어가기

한국어는 주어 부각형 언어와 주제 부각형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언어로 분류되며, 중국어는 주제 우선형 언어로 분류된다.¹⁾ 한국어 및 중국어 형용사 구문에서 주어와 주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중에서 논란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문장 유형은 성상형용사 구문이다. 앞서 한·중 형용사 구문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주관/객관 형용사의 용법에 관한 것이다.²⁾ 비록 한·중 주어와 주제³⁾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라도 주로 구문에서 주어의 판별이나 주제의 용법에 몰두하여 연구한 것이 많았다.⁴⁾ 또한 한·중 구문을 대비하여 한국어 성상형용사 구문에서 주어와 주제를 규정하려는 시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한국어 학계에서 성상형용사를 가진 이중주어문에서 주어와 주제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학자마다 주장이 분분하였는데, 이를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코끼리는 코가 길다’라는 구문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입장은 ‘코끼리는’을 전체 문장의 큰 주어로, ‘코가’를 서술질의 작은 주어로 본 ‘서술절 내포문설’이다. 두 번째 입장은 서술질의 안은문장을 비판하고 ‘코끼리는’을 문장 안에 유일한 주어로, ‘코가’를 비주어로 본 ‘단일주어설’이다. 마지막 입장은 ‘코끼리는’을 주체어로, ‘코가’를 주어로 보는 ‘주체어설’이다. ‘단일주어설’과 ‘주체어설’은 소위 ‘이중주어문’을 단일주어문으로 분석한다.⁵⁾

1) Li, Charles N. and S. Thompson,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C. Li(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p. 457-489.

2) 한국어 형용사 구문에 대해 논의한 학자로는 임동훈(1997), 김세중(1989), 이흥식(2000) 등을 들 수 있고, 중국어 형용사 구문에 대해 논의한 학자로는 张国宪(1995), 沈家煊(1997), 杨成凯(1997) 등을 들 수 있다.

3) 어떤 학자들이 주제와 화제를 구분하여 연구하였는데, 여기서는 주제와 화제를 구분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같은 의미로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여 논의할 것이다.

4) 한국어 주어와 주제에 관해 논의한 학자로는 박상수(1994), 이호승(2018), 유현경(2021)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어 주어와 주제에 관해 논의한 학자로는 徐烈炯·徐丹青(1998), 徐杰(2001), 沈家煊(2019) 등을 들 수 있다.

5) 한국어 ‘코끼리는 코가 길다’라는 구문을 ‘서술절 내포문설’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최현배(1937), 임동훈(1997), 이정택(2006) 등이 있다. 이에 반해 ‘단일주어설’을 주장하는 학자로는 김정남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끌어낼 수 있다. 즉, 한국어 성상형용사를 가진 ‘NP1 + NP2 + A’ 구조에서 ‘NP2 + A’를 서술절로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서술구’로 분석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NP2 성분을 주어로 할당할 만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제시해야만 해당 구문이 복문인지 단문인지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NP1을 주어로 할당할 것인가, 아니면 주제어로 할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도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단일주어설’을 주장하는 목정수(2005), 한국어 주제의 개념을 제시한 임홍빈(2007), 그리고 중국어 주어 및 주제 특징 모두가질 수 있다는 徐杰(2001)의 주장을 중심으로, 중국어와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 성상형용사를 포함한 이중주어문에서 진정한 주어 성분이 무엇인지, 주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밝혀낼 것이다. 또한 첫 번째 명사구와 두 번째 명사구를 무엇으로 분석해야 더 적절한지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2. 한중 주어와 주제의 논의 및 문제들

1) 한국어 주어와 주제에 대한 논의들

임홍빈(2007)에서는 소위 ‘이중주어문’에서 첫 번째 명사구를 주제로 보고 있는데, 한국어 주제의 특징 및 잉여성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⁶⁾

(1) 한국어 주제의 특징

ㄱ. 한국어에서 주제는 문장 차원에서 설정되는 문법적 범주이다.

(2005), 목정수(2005), 소령명(2020, 2022b) 등을 들 수 있다. ‘주제어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로는 임홍빈(2007), 이호승(2018), 유현경(2021) 등이 있다.

6) 한국어 주제의 특징 및 잉여성분에 대한 개념은 임홍빈(2007: 187)을 인용한 것이고, 본고가 수용하고 있는 주제의 개념은 바로 임홍빈(2007)에서 제안된 것이다.

- ㄴ. 한국어 문법에서 주제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의 통사적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
- ㄷ. 문법적 주제를 설정하지 않으며, 한국어의 문장 구조는 해결되지 않는 ‘나머지’를 가지게 된다.

잉여성분 분석 원리와 담화 화용적 분석 원리

- ㄱ. 잉여성분 분석 원리: 어휘부의 논항 정보에 의하여 분석되지 않는 성분을 잉여성분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ㄴ. 담화 화용적 주제 원리: 문장의 모든 주요 의미 · 화용적 대상은 담화 · 화용적 주제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잉여성분이 통사적 주제가 되는 것은 이 원리에 의한 것이다.

임흥빈(2007)의 논의를 다시 정리하자면, 소위 ‘이중주어문’에서 첫 번째 명사구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이 아니고, 관형어와 부사어와 같은 수식어도 아닌 것이다. 해당 논의에서는 이는 ‘언급대상성’이라는 의미 특성을 갖는 문장의 잉여성분으로 보았으며 잉여성분을 남기면 안 되므로 한국어의 문법적 주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첫 번째 명사구가 통사적 주제라는 개념을 주장하였다. 예컨대, ‘철수는 동생이 사과를 먹었다.’⁷⁾라는 구문에서 ‘철수’는 주제, ‘는’은 주제 표지, ‘철수는’은 전체 문장의 잉여성분이라 하였으며 이를 통사적 주제라고 주장하였다.⁸⁾

목정수(2005)에서는 소위 이중주어문에 대해 서술절 설정을 반대하면서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였다. 동사의 종류와 이중주어구문의 상호 관계, 동사, 동사구, 단어결합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소위 이중주어문을 서술절 설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단일 주어 구문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7) 임흥빈(2007: 164)에서 인용한 예문이다.

8) 본고에서는 ‘철수는 동생이 사과를 먹었다.’에서 ‘철수는’의 ‘철수’, ‘는’, ‘철수는’을 구분하지 않고, 논의의 편의를 위해 ‘철수는’을 주제 성분으로 규정하기로 한다.

이호승(2018)에서는 임홍빈(2007)의 주제 개념을 적용하여, 목정수(2014)에서 제시된 대응현상을 재검토하였다. 이후 정도 부사의 수식 범위, 한국어 특유한 선어말어미 ‘-시-’의 호응 현상, 관형절의 표제 명사 되기 현상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어 성상형용사 구문의 주제와 주어를 검토하였는데, 예문을 그대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2) ㄱ. 아버님이 키가 (*커요 / 크세요).

ㄴ. 아버님이 손자들의 키가 (커요 / *크세요).

(이호승, 2018: 286)

이호승(2018: 287)에서 (2ㄱ)의 ‘아버님’과 ‘키’는 ‘대상-속성’이라는 의미적 관계이고, NP2인 ‘키’의 소유주가 NP1인 ‘아버님’의 ‘키’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NP1인 ‘아버님’과 ‘-시-’의 호응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하였다. 만일 (2ㄴ)과 같이 ‘키’의 소유주를 표현하는 관형어 ‘손자들의’가 ‘키’의 명사구 내에 실현되면 NP1인 ‘아버님’은 ‘-시-’와 호응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2ㄱ)의 NP1인 ‘아버님’은 ‘-시-’와 호응하더라도 주어의 자격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제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호승(2018)에서 분석한 결과를 다시 정리해 보면, (2ㄱ)과 (2ㄴ)의 NP1 성분은 모두 ‘아버님’에 할당되는 것이고, (2ㄱ)과 (2ㄴ)의 NP2 성분은 각각 ‘키’와 ‘손자들의 키’에 할당되는 것이다. 이때 임홍빈(2007)의 주제의 개념을 활용한다면 (2ㄴ)의 NP1인 ‘아버님’을 잉여성분으로서의 주제어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와 평행한 구조인 (2ㄱ)의 ‘아버님’을 주어로 보지 않고 주제어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문을 통하여 (2ㄱ)의 NP1을 주제어로 보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2ㄱ)과 (2ㄴ)이 서로 대응되는 구문이 아닐뿐더러, 앞으로 살펴볼 ‘손자들의 키가 커요’와 ‘손자들이 키가 커요’라는 구문도 의미상으로나 구조상으로 차이가 다소 있다고 본다. 임홍빈(2007)의 주제의 개념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본고의 분석 방향은 이호승(2018)의 분석 방향과 일치하

지 않는다.

유현경(2021)에서는 주제어가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와 호응 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는 주제어가 서술어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위 ‘이중주어문’에서 첫 번째 명사구를 주제어로, 두 번째 명사구를 속성 주어로 분석하였으며 해당 구문에서 주어는 하나밖에 없다는 ‘주제어설’을 주장하였다.

(3) ㄱ. 김 선생님은 발이 (*크다 / 크시다).

ㄴ. 김 선생님은 따님이 친구가 (많다 / *많으시다).

(유현경, 2021: 23, ‘ㄴ’은 필자)

유현경(2021)의 분석에 따르면, (3ㄱ)의 선어말어미 ‘-시-’는 ‘김 선생님은’과 호응 관계가 되어, ‘김 선생님은’이 주어보다는 주제어의 속성을 더 많이 가졌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발이 크시다’의 통사적 성격이 서술절과 같은 성격을 갖기에 ‘발이’를 주어로 분석하였다. (3ㄴ)에서 ‘김 선생님은’과 ‘따님’이 두 주체는 모두 ‘-시-’와 호응하지 않는데, 해당 논의에서는 (3ㄱ)의 통사 구조를 참고하여 (3ㄴ)의 ‘따님’을 주어로 보았다. 또한 친구가 많은 사람이 ‘김 선생님은’이 아니라 ‘따님이’이기 때문에 (3ㄴ)의 ‘따님이’를 주어로, ‘김선생님은’을 주제어로 분석하였다. 그럼, (3)을 변형하여 상세히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ㄱ. 발은 김 선생님이 크지.

ㄴ. *따님은 김 선생님이 친구가 많다.

(3ㄱ)에서 어순을 도치하면 (4ㄱ)이 되는데, 이때 (4ㄱ)의 ‘발은’을 주제어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어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김 선생님이’를 주어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주제어로 봐야 하는가 등의 의문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3ㄴ)의 어순을 도치한 (4ㄴ)은 비문이 된다는 것을 보

면 (3ㄱ)과 (3ㄴ)은 평행한 구조를 갖는 구문으로 보지 못할 것이며, 그렇기에 (3ㄱ)을 참고하여 (3ㄴ)의 통사 구조를 규정하는 것은 그리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소위 ‘이중주어문’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명사구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자 한다.

2) 중국어 주어와 주제에 대한 논의들

중국어 주어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문장 맨 앞에 위치하며, 그것은 서술어의 변화를 일으키는 대상이다. 평서문에 있어서는 주어는 동사(서술어) 앞에 오는 것이라고 하였다.⁹⁾ 중국어의 주제라는 개념은 학자 Li & Thompson(1976)의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어 학계에서는 중국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 주어보다 주제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赵元任(1968)에서는 중국어 문장에서 주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문두에 위치한 명사구는 주어 및 주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주어와 주제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중국어 문장에서 주어와 술어의 문법적 의미는 ‘주제-평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赵元任(1968)에서는 주어가 담화의 배경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하므로 중국어의 주어를 주제로 간주하는 것이 비교적 적합하며, 중국어 주술술어문의 첫 번째 명사구는 주제어, 나머지 성분은 평언이 된다고 하였다.

중국어 문장 성분을 ‘주제-평언’ 구조로 여기는 대표적인 학자인 徐通锵(1997)에서는 중국어는 주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로 보았는데, 중국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때에는 영어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으로 구분해서는 안 되고, ‘주제-평언’이라는 구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중국어 주술술어문에서 문두에 위치한 명사구를 주제로 보고 나머지 성분

9) 石毓智, 「汉语的主语与话题之辨」, 『语言研究』第二期, 2001, 82-91쪽.

을 평언이라고 규정하였다.

胡裕树·范晓(1985)에서는 주어와 주제를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삼개평면이론(三个平面理论)’을 이용하여 주어와 주제의 차이를 구분하였다. 주어는 통사 층위의 개념이고, 주제와 평언(话题和说明)은 화용 층위의 개념이고, 실사와 수사(施事和受事)는 의미 층위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주술술어문을 분석할 때에는 통사 층위와 화용 층위를 구분하여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통사 층위에서 분석할 때는 주술술어문의 첫 번째 명사구를 대주어로, 두 번째 명사구를 소주어로 보았으며 문장 구조는 ‘대주어+소주어+서술어’라고 하였다.¹⁰⁾ 화용 층위에서 분석할 때는 주술술어문의 첫 번째 명사구는 대주어가 아니라 주제가 되며 나머지 성분을 평언이라고 하였다.

徐烈炯·徐丹青(1998)에서는 중국어는 주제 우선형 언어라는 범주에 속하므로 중국어 주제는 주어와 목적어처럼 문장의 통사구조에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주제는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자리도 아니라 문법 층위에서 특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에는 문두에 명사구가 하나인 경우에는 그 명사구를 주어로 보았는데, 문두에 명사구가 두 개나 두 개 이상 나타나는 주술술어문의 문장 성분을 분석할 때에는 첫 번째 명사구를 주제로, 두 번째 명사구를 주어로 간주했으며 문장 구조를 ‘주제-주어-서술어’라고 주장하였다.

徐杰(2001)에서는 보편적인 문법 이론의 시각에서 한국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 나타나는 주어와 주제에 관한 문제들을 다시 검토하였는데, 주어는 일반적인 개념이며 서술어 및 목적어와 같이 평행한 통사 층위에 있는 용어라고 했다. 반면에 해당 논의에서는 주제는 주어, 서술어 및 목적어와 같이 평행한 통사 층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문법 층위에서는 독립된 문법 요소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주제가 어떤 통사 성분을 부여받음으로써 어떤

10) ‘삼개평면이론’은 중국 많은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졌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다소 상이했기 때문에 주어와 주제에 대한 논의도 학자마다 분분하였다. 그중 주술술어문을 ‘대소주어설’로 분석한 관점도 있었는데 이는 소령령(2020)을 참고하기 바란다.

언어에서는 ‘자리바꿈’, ‘표지 추가(加标)’ 등과 같은 문법적 변형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제는 어떠한 문법적 특징인 [+TOP]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통사 층위에서 소위 ‘주제 구조’는 사실 이중주어 구조라고 주장하였다.

중국어 주어와 주제에 대한 논의들을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 张先生 确实 朋友 很多。 (徐杰, 2003: 19)

장 선생은 정말 친구가 많다.

주제 주제? [a. 주제 성분만 있다는 견해(赵元任, 1968)]

주어 주어 [b. 주어 성분만 있다는 견해(胡裕树·范晓, 1985)]

주제 주어 [c. 주제와 주어가 다 있다는 견해(徐烈炯·徐丹青, 1998)]

주어/[+TOP] 주어 [d. 주어와 주제 특징이 다 있다는 견해(徐杰, 2001)]

- (6) 花 玫瑰 最 好。 (徐杰, 2003: 19)

꽃은 장미가 제일 예쁘다.

주제 주제? [‘a’를 주장하는 견해]

주어? 주어 [‘b’를 주장하는 견해]

주제 주어 [‘c’를 주장하는 견해]

주어/[+TOP] 주어 [‘d’를 주장하는 견해]

(5)과 (6)의 구문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a’와 ‘b’의 분석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c’의 분석도 ‘上海很繁荣(상해는 아주 번창하다)’라는 구문에 적용될 때에는 ‘上海(상해는)’은 주어인가 주제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徐杰(2001)에서는 앞에 나온 세 가지 분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d’라는 새로운 분석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주어를 판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하여 한 문장을

형성했는지를 보는 것이다(杨成凯, 1997). 徐杰(2001)에 따르면, (5)에서 ‘朋友 + 很多(친구가 많다)’를 주술구조로 설정하면 구문에서 독립되어 단독적으로 쓰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朋友 + 很多(친구가 많다)’라는 말을 들으면 ‘谁啊?(누가?)’라는 질문을 필연적으로 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朋友 + 很多(친구가 많다)’라는 구조에서 ‘朋友(친구가)’를 주어로 입증할 만한 근거도 충분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6)과 같은 구문은 전형적인 주제문인데 ‘花(꽃은)’을 주제로 보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주어로 보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徐杰(2001)에서는 ‘d’라는 새로운 분석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주어와 주제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에 아직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본다. 주어와 주제를 어떻게 분석해야 더 적절한 분석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단일주어설’을 주장하는 목정수(2005)와 주어 및 주제 특징 모두 가질 수 있다는 徐杰(2001)의 주장을 중심으로 성상형용사 구문을 가진 소위 ‘이중주어문’¹¹⁾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와 비교하여 주어와 주제의 용법을 재규정하기로 한다.

3. 한중 대비를 통해 본 성상형용사문의 주어와 주제

1) ‘NP1+NP2+A’ 구조에서 주어의 검증기제

유현경(2015: 81)에서는 NP1이 서술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NP2를 생략하면 안 되는 ‘NP1 + NP2 + A’ 구조에서 NP1을 주어가 아닌, 주체어로 보았으며 NP2를 ‘속성주어’라 칭하였다. 그러나 NP2의 생략이 가능한 ‘NP1 + NP2 + A’ 구조에서는 NP1이 주어가 된다고 하였다. 예문을 그대로 가져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논의의 편의로 위해 한국어 이중주어문과 중국어 주술술어문을 모두 ‘NP1+NP2+A’ 구조로 표시할 것이다.

(7) ㄱ. 그는 혈압이 높다.

他 血压 很高。

ㄴ. 소금은 맛이 짜다.

盐 味道 很咸。

(유현경, 2015: 79, 80)

유현경(2015)에서는 (7ㄱ)의 ‘그는(他)’은 서술어인 형용사 ‘높다(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며 ‘혈압이(血压)’가 문장에서 생략되면 비문이 되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는 ‘그는(他)’이 아니라 ‘혈압(血压)’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7ㄴ)에서 ‘소금은(盐)’은 서술어인 형용사 ‘짜다(咸)’의 속성 자질을 가지고 있고, 속성주어 ‘맛이(味道)’를 생략해도 구문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구문의 주어는 ‘맛이(味道)’가 아니라 ‘소금은(盐)’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유현경(2015)에서 (7ㄱ)과 (7ㄴ)처럼 NP2인 ‘혈압(血压)’과 ‘맛이(味道)’를 모두 속성주어로 본 것인데, NP1인 ‘그는(他)’을 주어로 볼 수 없고 ‘소금은(盐)’만을 주어로 본다는 분석은 다소 모순적으로 보인다. 구문을 분석할 때에는 의미 층위만 중시하면 안 되고 구조 층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8) ㄱ. 철수는 키가 크다.

哲洙 个子 很高。

ㄴ. 키가 큰 철수

个子 高高的 哲洙

ㄷ. *철수가 큰 키

*哲洙 高高的 个子

(김정남, 2005: 173)

목정수(2020)에서는 한국어 소위 ‘이중주어문’에서 NP1, NP2와 A 간에

의미 관계를 검토하였는데 술어가 두 자리 서술어를 두 논항으로 요구하는 문장 유형으로 볼 때, NP2 논항은 술어에 대해서 내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에 비해, NP1 논항은 술어에 대해서 바깥에 놓여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하였다.

张敏(1998)에서는 인지언어학에서는 개념상에 더 가까운 실체가 어순 거리상 더 가깝다고 보았다. 소령령(2021)에서는 이런 관점을 따라, 중국어 ‘NP1+NP2+A’ 구조를 분석하였는데 NP1, NP2와 술어를 제약하는 요소를 거리도상성(距离象似性)이라고 불렀고, 술어와 NP1의 관계가 개념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멀고, 술어가 NP2에 대해 진술한 것은 개념상으로 볼 때 거리가 더 가깝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8ㄱ)에서 NP2인 ‘키가(个子)’는 ‘크다(高)’와 개념상으로 볼 때 관계가 더 가깝고, 서술어 ‘크다(高)’는 NP1인 ‘철수는(哲洙)’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 그리고 서술어 ‘크다(高)’는 NP2인 ‘키가(个子)’를 묘사하는 것이고 내부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반면, 서술어는 NP1에 대하여 외부적이고 간접적인 관계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8ㄱ)의 통사 구조는 [[철수는 키가 크다.]/[[哲洙 个子] 高]가 아니라 [철수는 [키가 크다.]]/[哲洙 [个子 高]]이다.

김정남(2005: 173)에서는 ‘서술절설’을 주장하는 임동훈(1997)의 이론을 비판하고 의존 문법의 관점을 이용하여 (8ㄱ)을 다시 분석하였는데, ‘철수는(哲洙)’과 ‘키가(个子)’는 모두 ‘크다(高)’의 보족어이며 ‘철수는(哲洙)’이 ‘크다(高)’로 표현되는 진술 내용의 대상으로 주어가 되고 ‘키가(个子)’는 대상의 일부분을 상세화하여 표현하는 수의적인 성격을 지닌 보격보족어(=비주어)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²⁾ 이를 입증하려고 (8ㄱ)을 관계화 문장으로 변경하면 (8ㄴ)과 (8ㄷ)이 된다.

연재훈(2003)에서는 관계절 구성에서 ‘NP2’ 성분은 관계절의 머리어가

12) 김정남(2005)에서 보족어를 필수적 보족어와 수의적 보족어로 나누어 놓았는데 필수적 보족어는 통사·의미론적 결합가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고 수의적 보족어는 서술어의 의미론적 특성에 따라 요구된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NP2 성분이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것이라 보족어에 대해 자세한 것을 김정남(2005)을 참조할 것이다.

될 수 없고, 이는 주관동사(=심리형용사)의 경우와 평행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관계절화 가능성의 위계에서 ‘주어’가 ‘목적어’나 ‘사격보어(처소>도구)’에 비해서 높은 것을 고려하면, ‘NP1’ 성분보다 ‘NP2’ 성분이 주어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함의되어 있다고 하였다.¹³⁾ 이런 관계화 제약을 따라 (8ㄴ)의 ‘키가(个子)’는 ‘철수는(哲洙)’보다 주어성이 떨어진다고 알 수 있고 ‘키가(个子)’가 관계화의 핵이 되면 (8ㄷ)처럼 비문이 된다. 즉, (8ㄱ)에서 ‘철수는(哲洙)’은 주어로, ‘키가(个子)’를 비주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이어서 김세중(1989)에서는 한국어에서 보어의 특징은 바로 서술어와의 밀착성이 있다는 것이고, 주어보다 보어는 서술어에 더 가까운 요소이며 서술어와 보어는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다. 즉 한국어에서는 보어가 서술어와 밀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계화의 표제명사로 쓰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관점을 따르면 예(8ㄱ)에서 ‘철수는(哲洙)’과 ‘키가(个子)’는 모두 ‘크다(高)’가 요구하는 논항이지만 ‘철수는(哲洙)’보다 ‘키가(个子)’가 ‘크다(高)’와 밀착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키가(个子)’를 주어가 아니라 비주어(=보어)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그럼, 다시 (8ㄱ)과 (7ㄴ)을 가져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9) ㄱ. 철수는 (키가) 크다.

哲洙 (个子) 很高。

ㄴ. 소금은 (맛이) 짜다.

盐 (味道) 很咸。

13) 목정수(2015: 30)에서 재인용.

14) 소령명(2021)에서 ‘NP1+NP2+A’ 구조에서 NP2를 주어가 아니라 비주어로 주장하는 논거들을 많이 제시하였는데 제세한 것은 소령명(2021)을 참조할 것이다. 여기서는 NP2가 주어보다 비주어라는 의견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예(9ㄱ)에서 NP1인 ‘철수는(哲洙)’이 서술어 ‘크다(高)’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NP2인 ‘키가(个子)’가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하는데 이는 (9ㄴ)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즉, 유현경(2015)에서 제시한 (9ㄴ)의 NP2인 ‘맛이(味道)’가 생략이 가능하므로 NP2를 주어로 본 의견과 일치하기 어렵다. 다른 예문들을 더 살펴본다.

(10) ㄱ. 王太太 头 疼。

왕 부인은 머리가 아프다.

ㄴ. 王太太 经常 头 疼。/*经常 王太太 头 疼。

왕 부인은 자주 머리가 아프다. / *자주 왕 부인은 머리가 아프다.

ㄷ. 王太太 不会 头疼。/*不会 王太太 头疼。

왕 부인은 머리가 아프지 않다. / *아니다 왕 부인은 머리가 아프다.

(石定栩, 1988: 53)

石定栩(1988)에서는 중국어 ‘才’나 ‘经常’와 같은 부사는 술어만을 수식할 수 있고 문장을 수식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会’나 ‘必定’류 같은 조동사는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 가운데에만 위치할 수 있는 데 반해 주어 앞에 위치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10)에서 중국어 부사 ‘经常’나 조동사 ‘不会’은 서술어 ‘头疼(머리가 아프다)’를 수식하는 것이고, NP1인 ‘王太太(왕 부인은)’ 앞에 위치하면 비문이 된다는 것을 보면 NP1인 ‘王太太(왕 부인은)’을 주어로, NP2인 ‘头(머리가)’를 술어로 간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ㄱ. 他 肚子小。

그는 겹이 많다. / 그는 소심하다.

ㄴ. 他 肚子饿。

그는 배가 고프다. / 그는 배고프다.

(王力, 1956: 173)

(12) ㄱ. 보석이 빛이 나다. / 보석이 빛나다.

宝石 发光了。

ㄴ. 철수가 화가 나다. / 철수가 화나다.

哲洙 生气了。

(안명철, 2001: 196)

王力(1956)에서는 ‘胆子小’나 ‘肚子饿’와 같은 구조는 문장에서 하나의 술어에 해당되는 것이기에 구문에서의 단어결합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는 曹逢甫(1990), 石定栩(1998) 등이 있다. (11ㄱ)과 (11ㄴ)에서 NP2인 ‘胆子(겁이)’를 주어로 보지 않고 NP1인 ‘他(그는)’을 구문의 유일한 주어 성분으로 본다. 즉, ‘NP2+A’ 구조는 단어결합으로 간주되며, 이를 주술구조로 보지 않고 ‘술빈구조(述宾结构)’로 본 것이다.

이어서 안명철(2001)에서는 ‘멋있-, 빛나-, 병나-’ 등과 같은 복합어들은 ‘구-동사’에서 완전히 복합어로 융합된 것들이라고 하였으며, 타동사 구문에서 형성되는 ‘구-동사’는 ‘목적어-동사’의 구성을 주로 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목정수(2020)에서 한국어에는 동사구가 하나의 단어로 어휘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절’이 하나의 단어로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화가 나다’, ‘겁이 나다’ 등과 같은 구조는 절을 구성한다기보다는 서술구로서 하위범주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문창학·목정수(2015)에서는 ‘화가 나다’는 ‘화나다’로, ‘화를 내다’는 ‘화내다’로 어휘화되어 각각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중국어 번역문을 보면 (12ㄱ)과 (12ㄴ)에서의 ‘빛이 나다’나 ‘화가 나다’는 각각 ‘发光’나 ‘生气’로서 모두 ‘술빈구조(述宾结构)’를 이루고 있다.¹⁵⁾ 즉, (12ㄱ)과 (12ㄴ)에서의 ‘빛이 나다’는 ‘빛나다’로, ‘화가 나다’는 ‘화나다’로 어휘화되었기 때문에, ‘NP2+A’ 구조를 서술절로 보기보다는 단어결합으로 된 동사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15) 范琦慧, 「중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본 한국어 연어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말하자면, 중국어 거리도상성(距离象似性) 원리를 이용하여 ‘NP1+NP2+A’의 통사구조는 [[NP1+NP2]+A]가 아니라 [NP1+[NP2+A]]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관계화 제약 이론, 한국어 보어의 특징, 중국어 부사 첨가 이론, 그리고 한중 단어의 결합이론 등의 몇 가지 방법을 이용했다. 이를 통해 한국어 성상형용사를 포함한 ‘NP1+NP2+A’ 구조에서 NP1은 구문에서 유일한 주어로 보았으며, 생략이 가능한 NP2를 비주어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소위 ‘이중주어문’에서 NP2를 주어로 보는 ‘주제어설’에 반대하며, ‘이중주어문’을 ‘단일 주어설’로 분석하는 목정수(2005)와 일치한다.

2) ‘NP1+NP2+A’ 구조에서 주어와 주제의 검토

임홍빈(2007)에서는 한국어의 문장 구조에서 해결되지 않는 ‘나머지’ 성분을 잉여성분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통사적 주제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임홍빈(2007)의 주제 개념을 수용하여 이호승(2018)에서는 한국어 성상형용사 구문의 주어와 주제 성분을 검토하였는데, 앞의 예문 (2)를 다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13) ㄱ. 아버님이 키가 (*커요 / 크세요).

爸爸 个子 很高。

ㄴ. 아버님이 손자들의 키가 (커요 / *크세요).

爸爸(的)孙子们的 个子 很高。

(이호승, 2018: 286)

앞에 2.1절에서 언급했듯이 이호승(2018)은 (13ㄴ)의 NP1은 잉여성분이라 선어말어미 ‘-시-’와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NP1이 주제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13ㄱ)과 (13ㄴ)에서 NP1은 모두 ‘아버님이’이고 NP2는 각

각 ‘키’와 ‘손자들의 키’에 할당된 것으로 보았는데, 주제화 변경 관계를 통하여 (13ㄴ)과 같이 (13ㄱ)의 NP1인 ‘아버님이’를 주어가 아니라 주제어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키’와 ‘손자들의 키’는 서로 대응시키면 안 되며, ‘손자들의 키가 커요’와 ‘손자들이 키가 커요’라는 두 구문은 의미상으로는 구조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뿐만이 아니라 (13)의 중국어 번역문을 보면 ‘爷爷个子很高’은 ‘爷爷(的)孙子们的个子很高’와 의미상·구조상에 완전히 다른 구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처럼 중국어 대역을 통해서도 이호승(2018)의 분석과 본고의 분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 (14) ㄱ. 那棵树 叶子大。
그 나무는 잎이 크다.
ㄴ. 那棵树的 叶子大。
그 나무의 잎이 크다.

(徐烈炯·刘丹青, 1998: 8)

陈仲选(1956)에서는 구문을 분석할 때에는 문장 구조가 다르다면 언어 형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분석 방법도 달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徐烈炯·徐丹青(1998)에서는 (14)와 같은 구문에서 ‘那棵树(그 나무는)’과 ‘叶子(잎이)’ 사이에 ‘的(의)’가를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의미상으로 구조상으로 모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앞에 (10)를 다시 가져와 ‘的(의)’를 첨가하는 예문을 만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5) ㄱ. 王太太 头疼。
왕 부인은 머리가 아프다.
ㄴ. 王太太 经常/不会 头疼。
왕 부인은 자주 머리가 아프다. / 머리가 아프지 않다.

(15') ㄱ. 王太太的头 疼。

왕 부인의 머리가 아프다.

ㄴ. *王太太的 经常/不会 头疼。

*왕 부인의 자주/안 머리가 아프다.

ㄷ. 王太太的头 经常/不会 疼。

왕 부인의 머리가 자주 아프다. / 아프지 않다.

중국어의 부사나 조동사는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위치하며, 이것들은 술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어의 부사나 조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하면 안 된다는 제약을 활용하여 구문 안에 주어 성분을 검증할 수 있다. 중국어 ‘经常/不会(자주/-지 않다)’는 (15ㄴ)처럼 ‘王太太(왕 부인)’과 ‘头(머리)’ 가운데에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15'ㄴ)에서 ‘王太太의(왕 부인의)’과 ‘头(머리)’ 가운데에 삽입되면 비문이 되기 때문에 (15ㄴ)의 ‘头(머리)’가 주어 성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5'ㄴ)에서는 ‘头(머리)’가 서술어 성분이 아니라 주어 성분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5'ㄷ)에서 부사나 조동사 ‘经常/不会(자주/-지 않다)’는 주어 ‘头(머리)’ 뒤에 위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제2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한·중의 주어와 주제는 일반적으로 문두에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徐杰(2001)에서는 문법 층위에서 주제가 독립된 문법 요소가 아니라 어떤 통사 성분을 부여받음으로써 문법적 특징인 [+TOP]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15'ㄱ)은 통사 층위에서 ‘王太太(왕 부인)’이 주어이자 동시에 주제 특징 [+TOP]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즉, (15'ㄱ)의 통사구조는 ‘주어/주제 특징 [+TOP] + 비주어 + 서술어’이다.

이어서 임홍빈(2007)에서는 소위 ‘이중주어문’에서 잉여 성분이 통사적 주제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15'ㄱ)에서 의미상으로 볼 때 ‘王太太(왕 부인)’와 ‘头(머리)’ 간에 ‘的(의)’를 첨가하여 ‘전체-부분’ 관계를 형성되고, 구조상에 볼 때 ‘头(머리)’와 ‘疼(아프다)’는 주술구조인데, ‘王太太(왕 부인)’

은 잉여성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주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5'ㄱ)의 통사 구조는 ‘주제 특징 [+TOP] + 주어 + 서술어’이다. 이어서 다른 문장 유형을 살펴본다.

(16) ㄱ. 王太太 女儿 漂亮。

왕부인은 딸이 예쁘다.

ㄴ. 王太太 女儿 非常/不 漂亮。

왕부인은 딸이 아주/안 예쁘다.

ㄷ. *王太太 非常/不 女儿 漂亮。

*왕부인은 아주/안 딸이 예쁘다.

(石定栩, 1998: 62)

(16') ㄱ. 王太太的 女儿 漂亮。

왕부인의 딸이 예쁘다.

ㄴ. 王太太的 女儿 非常/不 漂亮。

왕부인의 딸이 아주/안 예쁘다.

ㄷ. *王太太的 非常/不 女儿 漂亮。

*왕부인의 아주/안 딸이 예쁘다.

중국어 부사 ‘非常(아주)’나 부정조사 ‘不(안)’의 특성을 이용하여 구문의 주어를 검증하였는데 ‘非常(아주)’나 ‘不(안)’은 (16ㄴ)과 (16'ㄴ)에서처럼 ‘女儿(딸이)’와 ‘예쁘다(漂亮)’ 간에 삽입할 수 있다. 이에 반해 (16ㄷ)과 (16'ㄷ)에서처럼 ‘王太太(왕부인은)’과 ‘女儿(딸이)’나 ‘王太太的(왕부인의)’와 ‘女儿(딸이)’ 가운데에 부사나 부정 조사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현상을 보면 (16ㄱ)과 (16'ㄱ)에서 서술어는 ‘예쁘다(漂亮)’이고, 주어는 모두 ‘女儿(딸이)’에 해당되는 것이며 ‘王太太(왕부인은)’이나 ‘王太太的(왕부인의)’는 모두 주어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6ㄱ)에서 ‘王太太(왕부인은)’과 ‘女儿(딸이)’ 간에 ‘的(의)’가 없어도 문장 의미나 구조는 (16'ㄱ)과 같은 것으로 본다.

또한, (16'ㄱ)에서 ‘王太太的女儿’은 일반적으로 소유 관계를 나타내고 ‘왕부인의 딸’이라는 한 개체를 뜻하는데, 이 문장은 ‘女儿(딸)’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며 의미상에 볼 때 ‘王太太(왕부인)’은 주어 성분 ‘女儿(딸)’의 소유자이고, 구조상에 볼 때 ‘女儿(딸)’이 주어이고 ‘漂亮(예쁘다)’는 술어이며 ‘王太太(왕부인)’은 잉여성분이 될 수밖에 없다. 제2절에서 주어와 주제의 개념에 따라 예(16ㄱ)와 (16'ㄱ)에서 ‘王太太(왕부인)’과 ‘王太太的(왕부인의)’이 모두 주제 특징 [+TOP]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女儿(딸이)’는 주어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두 문장의 통사구조는 모두 ‘주제 특징[+TOP] + 주어 + 서술어’이다.

이에 따라 (15ㄱ)과 (16ㄱ)은 표면적인 구조가 같지만 사실상 두 구문이 같은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호승(2018)에서는 (15ㄱ)과 (15ㄴ)이 서로 대응된다고 보지만, 본고에서는 두 문장이 의미상이나 구조상에 차이가 모두 있다고 본다. 이를 더 입증하기 추가적으로 비교 문장을 살펴볼 것이다.

(17) ㄱ. 王太太 头疼。

왕 부인은 머리가 아프다.

ㄴ. 王太太比李太太 还经常 头疼。

이 부인보다 왕 부인은 더 자주 머리가 아프다.

(18) ㄱ. 王太太 女儿 漂亮。

왕 부인은 딸이 예쁘다.

ㄴ. *王太太比李太太 女儿 漂亮。

*이 부인보다 왕 부인은 딸이 예쁘다.

(石定栩, 1998: 53)

(19) ㄱ. 王太太的 女儿 漂亮。

왕부인의 딸이 예쁘다.

ㄴ. *王太太比李太太的 女儿 漂亮。

*이 부인의보다 왕 부인의 딸이 예쁘다.

ㄷ. 王太太的女儿比李太太的女儿 还 漂亮。

이 부인의 딸보다 왕 부인의 딸이 더 예쁘다.

ㄹ. ?*王太太的女儿比李太太 漂亮。

?*이 부인보다 왕 부인의 딸이 예쁘다.

ㅁ. 王太太的女儿比李太太的 漂亮。

이 부인의 딸보다 왕 부인의 딸이 예쁘다.

중국어의 주제라는 개념을 중시하는 Li & Thompsom(1981)에서는 중국어 'X比Y + (부사) + 범위'¹⁶⁾라는 구문에서 X는 비교의 참고 대상을, Y는 비교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비교의 참고 대상 X가 꼭 주어나 주제에 해당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¹⁷⁾

石定栩(1988: 51-53)에서는 중국어 비교 문장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였고 중국어 문법에 잘맞는 결론을 내리었는데 중국어 비교 문장의 특징은 비교 문장의 범위에 목적어(宾语)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였고,¹⁸⁾ 비교 문장에서 'X比Y' 형식의 뒤에 주어가 오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17ㄴ)에서 '王太太比李太太(이 부인보다 왕 부인은)'은 뒤에 '头(머리가)'가 주어 성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8ㄴ)은 비문이 되는 이유는 바로 'X比Y' 형식의 뒤에 '女儿(딸이)'가 주어 성분에 할당되기 때문이다.

또한, (19ㄴ)도 '王太太(왕 부인)'과 '李太太(이 부인)'은 비교하는 형식의 뒤에 주어 성분 '女儿(딸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19ㄷ)에서 '王太太的女儿(왕 부인의 딸)'과 '李太太的女儿(이 부인의 딸)'은 서로 대응

16) 예문을 들면 '小明比哥哥还高。(형보다 샤오밍이 키가 더 크다.)'라는 구문에서 '小明(샤오밍)'은 비교의 참고 대상을, '哥哥(형)'을 비교의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다.

17) 소령령, 「한중 대비를 통해 본 'NP1+NP2+V' 구조의 주어 설정 문제」, 『이중언어학』 제89집, 2022a, 85-112쪽.

18) 본고에서 중점을 두고 논의하는 것은 'X比Y' 형식이 주어 앞에 오지 못한다는 것인데, 중국어 비교 문장의 범위에 목적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논의에 큰 상관이 없으므로 자세한 것은 소령령(2022a)를 참조할 것이다.

하여 비교하는 구문이고 정문이라고 본다. (19ㄷ)에서도 문법적으로 분석하면 ‘王太太的女儿(왕 부인의 딸)’과 ‘李太太(이 부인)’을 비교한 것인데, 실상에는 비교 대상이 서로 대응되지 않아 어색한 문장이라고 여겨지게 된다. 그러나 (19ㄴ)에서 ‘李太太(이 부인)’ 뒤에 ‘的(의)’가를 들어가면 ‘이 부인의 딸(이 부인의 것)’이 되고, 여기서 중국어 ‘的(의)’가 ‘女儿(딸)’의 대응어로서 구문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女儿和女儿(딸과 딸)’과 비교된 구문이 되기 때문에 정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8ㄱ)과 (19ㄱ)에서 중국어 ‘的(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큰 상관없이 두 문장은 문법적이나 의미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曹逢甫(1990)에서는 소위 중국어 주술술어문을 두 가지 유형을 나누었는데, 하나는 (17ㄱ)과 같은 대표적인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예(18ㄱ)과 같은 전형적인 유형이다. 전자는 NP1과 NP2 간에 중국어 ‘的’를 들어가면 구문의 의미나 구조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후자는 NP1과 NP2 간에 중국어 ‘的’를 들어가도 구문의 의미상·구조상에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본다. 또한, 3.1절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어 부사의 첨가 원리를 이용하여 구문의 주어와 술어를 검증할 수 있었다. (17ㄴ)에서 부사 ‘还经常(더 자주)’는 ‘头(머리가)’ 앞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NP2인 ‘头(머리가)’가 주어로 볼 수 없다. (19ㄷ)에서 부사 ‘还(더)’는 ‘王太太(왕 부인)’과 ‘女儿(딸)’의 가운데에 삽입할 수 없으며 NP2인 ‘女儿(딸)’과 서술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女儿(딸)’에 주어 성분을 할당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NP1+NP2+A’ 구조에서 (17ㄱ)처럼 NP2와 서술어의 관계는 아주 긴밀하지만 서술어와 NP1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NP1과 NP2 사이에는 조동사나 부사를 첨가할 수 있기 때문에 NP1을 주어 성분으로, NP2를 비주어 성분으로 본다. 이에 반해 (18ㄱ)처럼 NP1과 NP2의 관계가 아주 긴밀한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부사나 조동사와 같은 단어를 첨가할 수 없기에 NP2를 주어 성분으로 보며, NP1을 잉여성분이자 주제 특성 [+TOP]를 봐야 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말하자면, 본고에서는 주제가 주어, 서술어 및

목적어와 같이 평행한 통사 층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문에서 어떤 통사 성분을 부여받음으로써 문법적 특징 [+TOP]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분석은 문법 층위에 특정한 자리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NP1+NP2+A’ 구조와 ‘NP1의 NP2+A’ 구조는 의미상·구조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문장은 서로 대응시켰을 때, 평행한 구조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5ㄱ)의 문장 구조는 ‘[王太太[头疼]]([왕 부인은 [머리가 아프다]].)’이고 통사 성분은 ‘주어/주제 특징 [+TOP] + 비주어 + 서술어’이다, (16ㄱ)의 문장 구조는 ‘[[王太太女儿]漂亮]([[[왕 부인은 딸이] 예쁘다]])’이고 통사 성분은 ‘주제 특징 [+TOP] + 주어 + 서술어’이다.

3) 주격중출 현상 구문에서 주어와 주제의 판별

한국어의 ‘이중주어문’을 단일 주어 구문을 주장하는 김정남(2005)에서는 ‘판단자’와 ‘판단 대상’의 입장에 서서 소위 ‘이중주어문’에서의 제1 명사구를 판단자이자 주격보족어(=주어)로 보았고, 제2 명사구를 판단 대상이자 보격보족어(=비주어)로 보았다.

(20) ㄱ. 나는 장미가 빨강다.

我认为 玫瑰 很红。

ㄴ. 나는 장미가 색깔이 예쁘다.

我觉得 玫瑰 颜色 很漂亮。

(김정남, 2005: 197, 233)

김정남(2005)에서는 (20ㄱ)과 (20ㄴ)에서 ‘빨강다’와 ‘예쁘다’는 모두 주관적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때 제1 명사구 ‘나는’을 판단자이자 주어로 보았고, 제2 명사구 ‘장미가’를 판단 대상이자 비주어로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20ㄴ)에서 ‘색깔이’는 부사로 대치할 수 없으며 단순한 수식 성분도 아니라 서술어의 의미를 좀 더 심화시켜 표현하는 것일뿐, ‘색깔이’가 없어도

문장의 성립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색깔이’를 수의적 보족어(=비주어)라는 명칭을 부여해 주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김정남(2005)의 분석과는 궤를 달리한다. (20ㄱ)에서 ‘빨강다’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나는’이 아니라 ‘장미가’이다. 서술어인 ‘빨강다’는 ‘장미가’에 대해 묘사한 것인데 ‘나는’은 장미가 어떤지에 대한 판단이고 서술어에 대해 외부에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나는’을 주어로 보기보다는 주제의 역할에 더 가깝다고 본다. (20ㄱ)의 한국어를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하면 *我玫瑰很红’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비문이 된다. 오히려 我认为…, 我觉得…(나는…생각한다)’이라는 내포된 표지가 들어야 정문이 된다. 이에 따라 (20ㄱ)에서 ‘나는(我认为…)’을 주제 특징 [+TOP]로, ‘장미가(玫瑰)’를 주어로 봐야 한다. 동일한 방법으로 (20ㄴ)에서는 ‘나는(我觉得…)’을 주제 특징 [+TOP]로, ‘장미가(玫瑰)’를 주어로, ‘색깔이(颜色)’를 비주어로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주제어설’을 지지하는 유현경(2015)에서는 김정남(2005)의 분석을 비판하였고, 예(20)과 같은 구문을 평가 구문이라고 하였다. 예문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21) ㄱ. 이 국은 맛이 짜다.

这汤 味道 很咸。

ㄴ. 나는 이 국이 짜다.

我觉得 这汤 很咸。

ㄷ. 나는 이 국이 맛이 짜다.

我觉得 这汤 味道 很咸。

(유현경, 2015: 73, ‘ㄷ’은 필자)

3.1절에 이미 언급한 것처럼 (21ㄱ)과 같은 구문을 ‘주제어설’을 보기보다는 ‘단일주어설’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입증하였다. 3.2절에서는 (21ㄱ)과 같은 구문에서 첫 번째 명사구가 주어 성분과 주제 성분을 모두 가

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21ㄱ)에서 ‘이 국은’을 구문에서 유일할 주어 성분일 뿐만 아니라 주제 특징 [+TOP]도 가지고 있다고 보며, ‘맛이’는 비주어로 보는 것이다. 판단문이라고 하는 (21ㄴ)의 중국어 번역문에서도 ‘我觉得…(나는)’이라는 내포적인 표지를 삽입하기 때문에 ‘나는’을 주제 특징 [+TOP]로, ‘이 국이’를 주어로 본 것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21ㄷ)에서 ‘나는(我觉得…)’을 주제 특징 [+TOP]로, ‘이 국이(这汤)’을 구문에서 유일한 주어로, ‘맛이(味道)’를 비주어로 분석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분석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다른 예문들을 살펴본다.

(22) ㄱ. 철수가 아내가 집을 나갔다. (임동훈, 1997: 37)

哲洙(的)妻子离家出走了。

ㄴ. 철수가 동생이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간다. (임홍빈, 2007: 486)

哲洙的弟弟每周末都去教会。

(22ㄱ)에서 집을 나간 사람이 ‘철수’가 아니라 ‘아내’이다. ‘철수가’는 서술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에 구조상에 볼 때 ‘철수가’를 잉여성분으로 본다 고 하면, ‘철수가’를 주제 특징 [+TOP]로, ‘아내가’를 주어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중국어 번역문은 ‘哲洙’와 ‘妻子’ 사이에 ‘的’를 첨가하여 소속 관계를 맺는 구문이 되었는데, ‘哲洙’를 주어의 소유자로서 주어를 수식하는 성분으로 삼는 것이다. 의미상에 볼 때 이 문장은 ‘妻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동작이며 동작의 주체가 ‘哲洙’가 아니라 ‘妻子’이므로 ‘妻子’를 주어로, ‘哲洙’를 주제 특징 [+TOP]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22ㄴ)에서 교회에 나간 사람이 ‘철수가’가 아니라 ‘동생이’이기 때문에 ‘동생이’를 주어 성분으로, ‘철수가’를 잉여 성분으로 간주하여 주제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22ㄴ)의 한국어 구문을 그대로 중국어로 번역하면 ‘哲洙弟弟’라는 구문이 되어 중의성을 띠게 된다. 하나는 철수라고 하는 동생이고, 다른 하나는 철수의 동생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중국어 번역문은 ‘哲洙’와 ‘弟弟’ 사이에 ‘的’를 반드시 첨가해야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22ㄱ)처럼 ‘哲洙的弟弟’라는 구조에서는

‘弟弟’를 주어로, ‘哲洙’를 주제 특징 [+TOP]로 본다. 그럼, 2.1절에 제시한 예문 (3)을 다시 가져와 살펴본다.

(23) ㄱ. 김 선생님은 발이 (*크다 / 크시다).

金老师 脚 很大。

ㄴ. 김선 생님은 따님이 친구가 (많다 / *많으시다).

金老师(的) 女儿 朋友很多。

목정수(2013)에서는 한국어 주체 존대 선어말어미 ‘-시-’와 호응하는 성분의 통사적 기능을 일관되게 주어로 규정하고 기술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선어말어미 ‘-시-’는 모두 문장의 진짜 주어 성분과 호응한다고 제시하였다.

한국어 특유한 문법 ‘-시-’와의 호응 관계를 이용하여 문장의 주어를 찾을 수 있는데, (23ㄱ)에서 ‘-시-’는 ‘김 선생님은’과 호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 선생님은’을 주어로 본다. 또 ‘발이 크시다’라는 것을 서술절로 보기보다는 서술구를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증거를 3.1에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발이’를 주어가 아니라 비주어로 본다. 또한, 3.2절에서 예(23ㄱ)과 같은 구문에서 ‘김 선생님은(金老师)’을 주어와 주체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23ㄴ)에서 ‘김 선생님은’과 ‘따님이’는 모두 선어말어미 ‘-시-’와 호응하지 않는데, 이때는 (23ㄱ)의 통사구조를 참고하여 ‘따님이’를 주어로 파악한다. 또 친구가 많은 사람이 ‘김 선생님은’이 아니라 ‘따님이’기 때문에 ‘김 선생님은’은 잉여성분으로 분석하게 되며, ‘김 선생님은’을 주제 특징 [+TOP]로 파악할 수 있다.

(24) 철수는 마누라가 집을 나가자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듯해.

哲洙的妻子离家出走了, ()装作很担心, 但其实内心却不是这样子的。

(목정수, 2005: 85)

찰스 N. & A. (2011: 127)에서는 주제는 문장이 진술하는 대상이므로 몇 개의 문장이 동일한 객체에 대해 진술하거나 주제를 공유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라고 하였으며, 주제는 쉽게 문장의 경계선을 넘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주어는 그것이 쓰인 문장 안에서만 주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¹⁹⁾ (24)에서 ‘걱정하는’의 주제는 ‘철수의 마누라’가 아니라 ‘철수’이고, 중국어 번역문에서 괄호 안에 생략된 성분도 ‘妻子’가 아니라 ‘哲洙’이기 때문에 (24)에서 ‘마누라’나 ‘妻子’는 서술어의 동작에 걸리는 것이므로 ‘마누라’나 ‘妻子’를 주어로 본다. ‘철수’이나 ‘哲洙’는 문장의 경계선을 넘어 연속된 문장 성분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이기에 ‘철수’나 ‘哲洙’는 주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다.

4. 나가기

본고에서는 한중 대비를 통하여 성상형용사 구문을 가지는 ‘NP1+NP2+A’ 구조에서 주어와 주제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제는 주어, 서술어 및 목적어와 같이 평행한 통사 층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문에서 어떤 통사 성분을 부여받음으로써, 언어의 문법적 특징 [+TOP]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는 문법 층위에서 특정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를 분석해 내는 과정에서 소위 ‘이중주어문’을 단일 주어 구문으로 보았다.

한·중 대비를 통하여 ‘NP1+NP2+A’ 구조에서 NP2의 성분을 다시 고찰하였으며, ‘NP2+A’를 서술절로 보기보다는 서술구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입증하였다. 또한 중국어 ‘거리도상성(距离象似性)’ 원리를 이용하여 ‘NP1+NP2+A’ 구조에서 NP1, NP2와 술어를 제약하는 요소를 분석하였다. NP1은 술어에 대해 개념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멀고 NP1과 술어는 외부에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술어는 NP2에 대해 진술한

19) 소령명, 「한중 주어와 화제에 대한 재분석」, 『중국어학』 제80집, 2022b, 292-293쪽.

것이기에 개념상으로 볼 때 NP2와 거리가 더 가깝고 NP2와 술어는 내부에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다. 예컨대, ‘철수는 키가 크다. (哲洙个子高。)’라는 구문의 통사구조는 [[철수는 키가 크다.]/[[哲洙个子高。]]가 아니라 [철수는 [키가 크다.]]/[哲洙[个子高。]]이다.

또한, 관계화 제약의 원리, 한국어 보어의 특징, 중국어 부사 첨가 이론, 그리고 한중 단어의 결합이론 등의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어 성상형 용사를 포함한 ‘NP1+NP2+A’ 구조에서 NP1은 구문에서 유일한 주어로 보았으며 생략이 가능한 NP2를 비주어로 판단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소위 ‘이중주어문’을 ‘단일주어설’로 분석하는 목정수(2005)와 일치하고 NP2를 주어로 본 ‘주제어설’이나 ‘서술절 내포문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장의 유형을 정한 후에는, 한·중 대비를 통하여 ‘NP1+NP2+A’ 구조에서 주어와 주제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다시 규정하였는데, NP1을 주체어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주어로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검토하였다. 중국어 부사 첨가 이론, 비교 문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NP1+NP2+A’ 구조와 ‘NP1의 NP2+A’ 구조는 의미상·구조상으로 차이가 다소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두 문장을 대응시켰을 때 평행한 구조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王太太头疼。(왕 부인은 머리가 아프다。)’라는 구문에서 ‘王太太(왕 부인은)’를 주어와 주제 특징 [+TOP]로 보았고, ‘头(머리가)’를 비주어로 보았다. 또 ‘王太太的头疼。(왕 부인의 머리가 아프다。)’라는 구문은 ‘왕 부인의 머리’를 중심으로 진술한 것인데 ‘왕 부인’을 잉여성분이자 주제 특징 [+TOP]로 분석하였고 ‘머리가(头)’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王太太头疼。(왕 부인은 머리가 아프다。)’와 ‘王太太女儿漂亮。(왕 부인은 딸이 예쁘다。)’라는 구문은 전자가 대표적인 유형이고, 후자는 전형적인 유형인데, 두 문장은 의미상이나 구조상에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王太太女儿漂亮。(왕 부인은 딸이 예쁘다。)’에서 NP1과 NP2 사이에 ‘的(의)’를 첨가하느냐 안 하느냐에 상관없이 구문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데 ‘王太太头疼。(왕 부인은 머리가 아프다。)’는 그렇지 않았다. 즉, 전자의 문장 구조는 ‘[王太太[头疼]]([왕 부인은 [머리가 아프다]].)’이고 통사 성분은

‘주어/주제 특징 [+TOP] + 비주어 + 서술어’이다, 후자의 문장 구조는 ‘[[王太
太女儿]漂亮]([[[왕 부인은 딸이] 예쁘다]])’이고 통사 성분은 ‘주제 특징
[+TOP] + 주어 + 서술어’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이호승(2018)의 분석
과 달리 두 문장은 평행한 구조로 보면 안 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주격중출 현상 구문에서 주어와 주제가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판단 구문이라 하는 ‘나는 이국이 맛이 짜다.(我觉得这
汤味道很咸。)’의 중국어 번역문에는 ‘我觉得…(나는)’이라는 내포적인 표
지를 삽입되기 때문에, ‘나는(我觉得…)’을 주제 특징 [+TOP]로, ‘이 국이(这
汤)’를 구문에서 유일한 주어로, ‘맛이(味道)’를 비주어로 분석하였다. 또한,
3.1과 3.2에서 주어와 주제를 검증하는 이론을 참고하여 ‘김 선생님은 따님
이 친구가 많다.(金老师女儿朋友很多。)’라는 구문에서 친구가 많은 사람이
‘김 선생님은’이 아니라 ‘따님이’이기 때문에 ‘김 선생님은’을 잉여성분으로
분석하게 되므로 ‘김 선생님은’을 주제 특징 [+TOP]으로 보았고, ‘따님이’를
주어로 분석하였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정남, 『국어 형용사의 연구』, 역락, 2005, 197-233쪽.
- 목정수, 『언어유형론, 정신역학론 그리고 한국어 문법』, 한국문화사, 2020, 252-276쪽.
- 이홍식,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월인, 2000, 184-226쪽.
- 임흥빈,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164-187쪽.
- 찰스 N. 리 & 샌드라 A. 톰스, 『표준중국어문법(수정 2판)』, 박정구 · 박종한 · 백은희 · 오문의 · 최영하 옮김, 도서출판 한울, 2011.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1937.
- 沈家煊, 『超越主谓结构--对言语法和对言格式』, 商务印书馆, 2019, 13-18쪽.
- 王 力, 『主语的定義及其在漢語中的應用』, 『漢語的主語賓語問題』, 中華書局, 1956, 173쪽.
- 徐 杰, 『普通語法原則與漢語語法現象』, 北京大學出版社, 2001.
- 徐烈炯 · 徐丹青, 『話題的結構與功能』, 上海教育出版社, 1998, 8쪽.
- 徐通鐸, 『語言論一語義型語言的結構原理和研究方法』,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7.
- Chao, yuan-ren(趙元任), *A Grammar of Spoken Chinese*,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 Li, Charles N. and S. Thompson,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C. Li(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1976, p.457-489.
- Li, Charles N.,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 Tsao, Feng-Fu(曹逢甫), *Sentence and Clause Structure in Chinese: a Functional Perspective*, Taipei: Student Book Co., Ltd, 1990.
- Yeon, J-H(연재훈), *Korean Grammatical Constructions: their form and meaning*, Saffron Books, London, 2003.

2. 논문

- 김세중, 「국어 심리형용사문의 몇 가지 문제」, 『어학연구』 제25호, 1989, 151-165쪽.
- 목정수, 「국어 이중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 제41집, 2005, 75-99쪽.
- _____,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과 주어 존대」, 『국어학』 제67집, 2013, 63-105쪽.
- _____, 「한국어 서술절 비판: 통사 단위 설정을 중심으로」, 『현대문법연구』 제76집, 2014, 101-126쪽.
- _____, 「한국어의 진성 주어를 찾아서」, 『어문논집』 제44권, 2015, 7-46쪽.
- 문창학 · 목정수, 「일한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대조 연구」, 『日本學研究』 제45호, 2015, 349-368쪽.
- 박상수, 「한국어 화제-주어/주제-주어 구조의 격표시 실현과 형태접점」, 『언어과학』 제1호, 1994, 39-60쪽.
- 소령령, 「한국어와 중국어의 주어와 화제 대조 연구 - ‘이중주어문’과 ‘주술술어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논문, 2020.
- _____, 「중국어 주술술어문에 대한 재이해」,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35집, 2021, 215-235쪽.
- _____, 「한중 대비를 통해 본 ‘NP1+NP2+V’ 구조의 주어 설정 문제」, 『이중언어학』 제89집, 2022a, 85-112

쪽.

_____, 「한중 주어와 화제에 대한 재분석」, 『중국어학』 제80집, 2022b, 292-293쪽.

안명철, 「이중주어구문과 구-동사」, 『국어학』 제38권, 2001.

유현경, 「한국어 형용사 구문의 주어」, 『형태론』 제17집, 2015, 69-91쪽.

_____, 「주제어의 통사론적 해석」, 『국어학』 제98집, 2021, 3-30쪽.

이호승, 「국어 성상형용사 구문의 주제어와 주어성 검증기제」, 『언어와 정보 사회』 제35호, 2018, 273-301

쪽.

이정택, 「이른바 중주어문에 관하여-서술절 설정의 당위성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제34집, 2006, 243-258쪽.

임동훈, 「이중 주어문의 통사」, 『한국문화』 제19회, 1997, 31-66쪽.

陈仲选, 「对于曹伯韩、高名凯两位先生主语宾语的意见」, 『语文学习』 第3期, 1956, 33-34쪽.

范琦慧, 「중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본 한국어 언어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胡裕树·范晓, 「试论语法研究的三个平面」, 『新疆师范大学学报』 第2期, 1985, 36-38쪽.

石定栩, 「汉语主题句的特性」, 『现代汉语』 第2期, 1988, 51-53쪽.

石毓智, 「汉语的主语与话题之辩」, 『语言研究』 第二期, 2001, 82-91쪽.

沈家煊, 「形容词句法功能的标记模式」, 『中国语文』 第4期, 1997, 242-250쪽.

徐 杰, 「主语成分、话题特征及相应语言类型」, 『语言科学』 第2卷, 2003, 3-22쪽.

杨成凯, 「“主主谓”句法范畴和话题概念的逻辑分析」, 『中国语文』 第4期, 1997, 251-259쪽.

张国宪, 「现代汉语的动态形容词」, 『中国语文』 第3期, 1995, 221-229쪽.

韩语性质形容词句中主语和话题的再分析

以中韩对比为中心

苏玲玲*

本文通过中韩对比重新探讨了韩语“NP1+NP2+A”结构中的主语和话题成分, 话题在语言中被指派给某些句法成分后, 表现出的是一种语法特征[+TOP], 话题在句法层面有属于自己独特的语法地位, 这一新的理解方案能够解决句法层面遗留的很多问题。本文还揭示了所谓的韩语“双重主语句”其实是单一主语句结构, NP1成分不仅是句中唯一的主语, 而且它还带有话题特征[+TOP], 然而, NP2即使在句中可以省略, 也不能分析为主语成分, 反而分析为非主语更加合适。除此之外, 本文还通过汉语副词的特征、比较句的特征等方法, 把“NP1+NP2+A”结构和“NP1의 NP2+A”结构进行了对比分析, 认证得出, 这两种句型不管是在句法层面, 还是在意义层面都是有差别的, 这两种句型不能看作是平行结构。

关键词 : 双重主语句, 单一主语句, 主语, 话题, 话题特征[+TOP]

논문투고일 : 2024년 12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25년 2월 2일 | 게재확정일 : 2025년 2월 18일

* 中山大学 国际翻译学院 东亚研究中心 副研究员